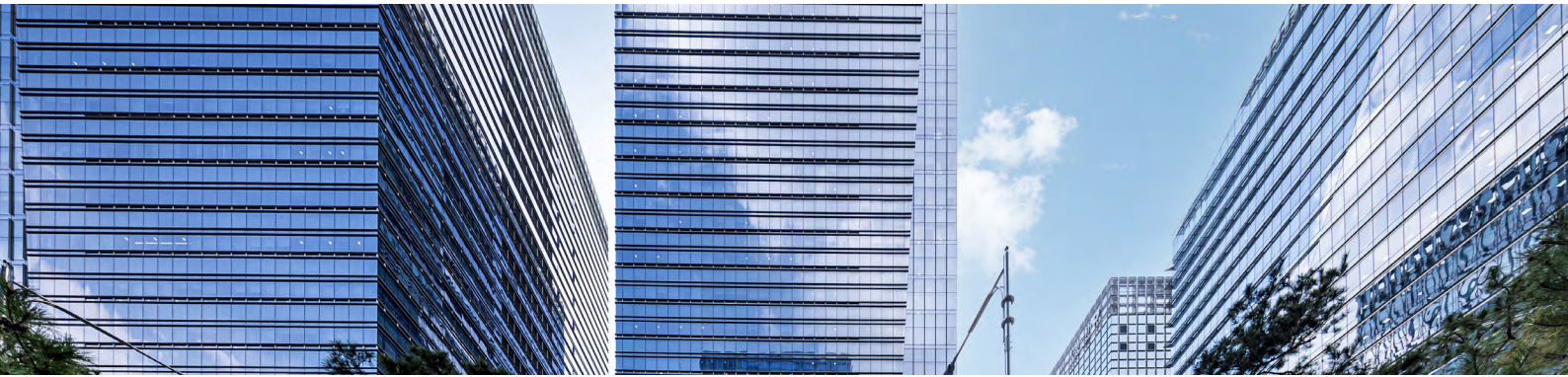


서울 프라임 오피스

오피스 - 한국 - Q3/2026

savills



견고한 임대시장 속 보수적 투자 기조 유지

주요 시사점

- CBD에서는 2개의 프라임 오피스 (204,000 sqm)가 공급되어 해당 권역 공실률이 2분기 대비 1.3%p 상승한 7.3%를 기록하였다. 반면 GBD와 YBD는 여전히 4% 미만의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 서울 프라임 오피스 시장의 전년 동기 대비 명목 임대료 상승률은 5.5%이나, 공실이 많은 건물에서는 렌트프리도 증가하고 있다.
- 2026년 3분기 서울 오피스 투자시장 총 거래 규모는 약 6.2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가치 제고 가능성,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산을 중심으로 선별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 최근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자금 조달 비용 부담으로 2026년 3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실질 Cap. Rate는 이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4%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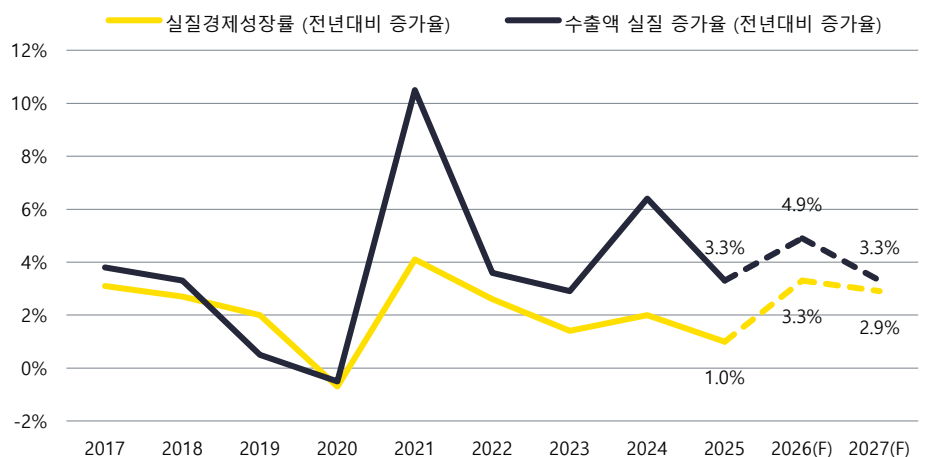
CBD에서는 지난 2분기에 G1 Seoul(143,432 sqm)과 르네스퀘어(60,344 sqm)가 준공되었고, 4분기 이을타워(44,907 sqm)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G1 Seoul에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첫 임차인으로 입주하였으며 르네스퀘어의 오피스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본청 및 서울청 사옥으로 100% 임대되었다. 한편, 한화소공빌딩과

태평로 한화금융센터는 리모델링이 추진됨에 따라 이번 분기부터 공실을 산정 등 시장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27년에는 공급 예정인 신규 프라임 오피스가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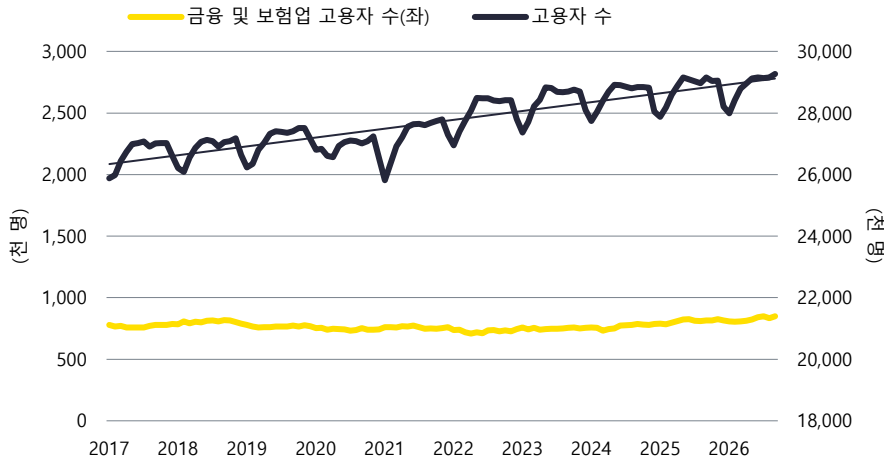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GDP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차트 1: 실질 GDP 성장률 및 실질 수출증가율, 2017년 - 2027년 (전망)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 2026.08)

차트 2: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 추이, 2017년 1월 - 2026년 9월



출처: 국가데이터처



최근 금리 인상과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상승으로 Cap. Rate의 상방 압력이 확대되며,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AVILLS RESEARCH

표 1: 프라임 오피스 권역별 월임관리비 및 공실률, 2026년 3분기

단위: 원/3.3 sqm, GLA

권역	임대료		관리비		순흡수면적 (sqm)	공실률(%) (전분기 공실률)
	평균	전년동기대비 인상률(%)	평균	전년동기대비 인상률(%)		
CBD	143,800	6.4%	52,800	4.0%	91,300	7.3% (6.0%)
GBD	138,300	4.8%	47,200	2.0%	-4,200	1.8% (1.7%)
YBD	117,100	4.6%	48,500	3.0%	12,600	3.6% (4.2%)
전체	136,400	5.5%	50,000	3.2%	99,700	4.6% (4.2%)

출처: 세빌스 코리아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반영해 기존 5월 전망치(2.6%) 대비 0.7%p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제의 경우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AI 투자 호조, 양호한 교역 증가세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미국의 통상압력 및 관세 부담 확대 등을 향후 성장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언급하였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미·이란 협상 관련 불투명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회 경로 및 중동 외 국가들을 통한 원유 공급 등으로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요와 공실률

2026년 3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순흡수면적은 99,700 sqm로 집계되었고, 평균 공실률은 이전 분기 대비 0.4%p 상승한 4.6%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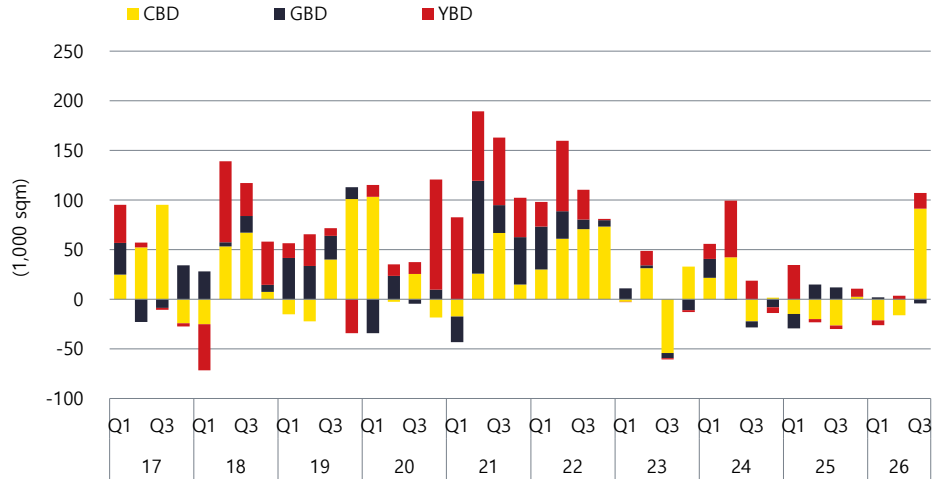
세 권역 중 CBD에서는 91,300 sqm로 가장 큰 순흡수면적을 기록하였으나, 대규모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공실률은 이전 분기 대비 1.3%p 상승한 7.3%로 조사되었다. 신규 공급된 G1 Seoul의 첫 임차인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GBD의 서울 707타워에서 이전해오며 3개 층(12,800 sqm)의 공실을 해소하였다. 르네스퀘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 층을 선임차하여 신규 공급과 동시에 흡수되었다. KDB생명타워에서는 텔레퍼포먼스와 구글코리아가 퇴거하여 발생한 5개 층의 공실에 CJ올리브영이 증평하며

10,800 sqm의 공실을 전부 해소하였다. 엔카닷컴은 AIA타워의 3개 층(4,400 sqm)에서 그랜드센트럴로 확장 이전(6,300 sqm)하였으며, 그랜드센트럴의 공실 2,100 sqm는 태평로 한화금융센터에서 퇴거한 한화라이프랩이 해소하였다. 타워8에 있던 SGI 서울보증보험이 그랑서울로 확장 이전하며 3,600 sqm의 공실을 해소하였고, D타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그랑서울로 확장하며 3,600 sqm의 공실을 해소하였다. 파인에비뉴 A동에는 한국아이큐비아솔루션스가 남산스퀘어에서 이전해오며 2,800 sqm의 공실을, 파인에비뉴 B동에는 KDB생명타워에서 퇴거한 텔레퍼포먼스가 입주하며 2,400 sqm의 공실을 해소하였다. 퍼시픽타워에서는 SK 네트워크서비스가 리마크빌종로로 이전하며 3,200 sqm의 공실이 발생하였다.

GBD는 세 권역 중 유일하게 순흡수면적이 감소(-4,200 sqm)하였으나, 공실률은 1.8%로 5분기 연속 2%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서초타워는 삼성증권의 신규 입주로 공실 2,500 sqm가 해소되었다. 아남타워에서 이전해온 제너럴밀스코리아가 글라스타워의 공실 2,000 sqm를 해소하였고, 그레이츠강남의 공실 1,800 sqm에는 홍우제2 빌딩에서 이전해온 게임 개발사 디나미스원이 입주하였다. 반면 아크플레이스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주니퍼네트웍스코리아가 퇴거하여 2,100 sqm의 공실이,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는 PRND컴퍼니가 퇴거하여 1,600 sqm의 공실이 발생하였다. 포스코타워역삼에서는 무궁화신탁이 1,700 sqm, KT&G타워에서는 KT&G가 1,400 sqm의 면적을 각각 감평하였다.

YBD는 TP타워, 앵커원 등 신규 공급의 영향이 점차 안정되며 2023년 2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4% 미만의 공실률을 보였다. Parc.1 Tower 1의 공실 3,700 sqm는 청담동 대산빌딩에서 이전해온 프라다가, 2,100 sqm는 아이파크타워에서 이전해온 뷰티·라이프스타일 기업 신미글로벌이 각각 해소하였다. FKI타워에서는 Parc.1 Tower 1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대륜이 1,600 sqm 면적에서 퇴거하였고, 재건축이 예정된 미래에셋증권빌딩에서 확장해온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이 3,700 sqm의 공실을 해소하였다. Parc.1 Tower 2에서는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구로 에이스하이엔드타워로 이전하여 3,400 sqm의 공실이 발생하였으나 공유 오피스 저스트코가

차트 3: 순흡수면적, 2017년 1분기 - 2026년 3분기



출처: 세빌스 코리아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며 동일 면적의 공실을 해소하였다. 이에 따라 YBD의 순흡수면적은 12,600 sqm,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6%p 하락한 3.6%로 집계되었다.

임대료와 관리비

2026년 3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136,400원/평으로 집계되었으며, 권역별로는 CBD 143,800원/평, GBD 138,300원/평, YBD 117,100원/평을 기록하였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CBD 6.4%, GBD 4.8%, YBD 4.6%의 인상률을 보였다. 다만 공실률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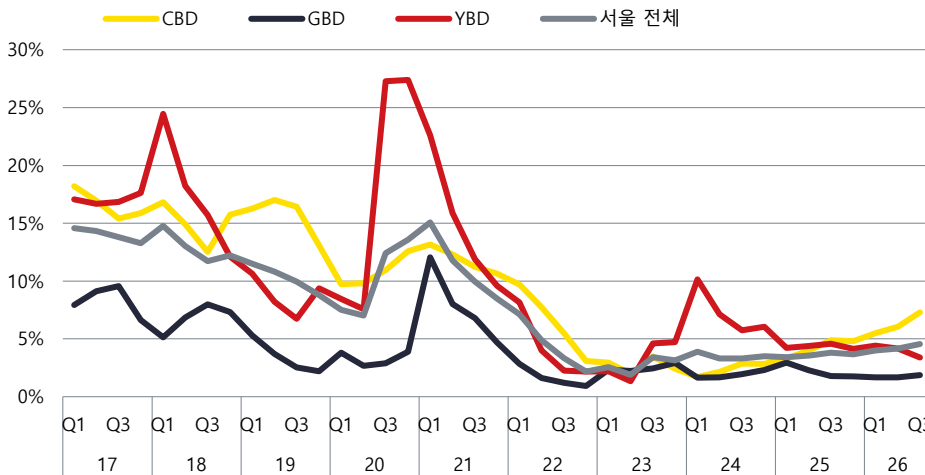
자산에서는 임차인 인센티브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분기에는 당사가 분석을 시작한 1997년 이래 처음으로 GBD의 명목 임대료가 CBD를 상회하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CBD의 평균 임대료가 다시 GBD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명목 임대료의 신규 프라임 오피스(G1 Seoul, 르네스퀘어)가 조사 대상에 편입된 반면,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자산(한화소공빌딩, 태평로 한화금융센터)들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GBD의 전년 동기 대비 임대료 상승률은 4.8%로 이전 분기(6.8%) 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평균 관리비는 50,000원/평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하였으며, 권역별로는 CBD 4.0%, GBD 2.0%, YBD 3.0%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관리비 인상률은 세 권역 전체에서 2~4%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망

CBD는 4분기에 이율타워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공실률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씨티센터타워에서는 쌍용C&E가 8,300 sqm의 면적에서 퇴거하여 강원도 동해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레이츠송레에서 신한은행(5,900 sqm)과 KB손해보험(2,100 sqm), 대우산업개발(2,100 sqm)이 퇴거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랜드센트럴에서는 CJ 웰케어(4,100 sqm)와 CJ바이오사이언스(2,100 sqm)가 퇴거할 예정이다. 센트럴폴리스에서는

차트 4: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 2017년 1분기 - 2026년 3분기



출처: 세빌스 코리아

표 2: 주요 임차인 이동, 2026년 3분기

이동 후				이동 전	
권역	빌딩명	임차인	임대면적 (sqm)	권역	빌딩명
CBD	르네스퀘어	중대범죄수사청	50,800	New	
	G1 Seoul A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2,800	GBD	서울707타워
	KDB생명타워	CJ올리브영	10,800	증평	
	Grand Central	엔카닷컴	6,300	CBD	AIA타워
		한화라이프랩	2,100	CBD	한화금융프라자 태평로
	그랑서울	법무법인 세종	3,600	증평	
		SGI서울보증보험	3,600	CBD	타워8
	파인에비뉴 A동	한국아이큐비아솔루션스	2,800	CBD	남산스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00	증평	
		신한카드	800	증평	
	파인에비뉴 B동	텔레퍼포먼스코리아	2,400	CBD	KDB생명타워
	홍국생명신문로	홍국생명 계열사	2,400	증평	
	페럼타워	유니드	2,100	증평	
		동국제강 계열사	600	증평	
GBD	삼성화재 서초타워	삼성증권	2,500	New	
	글라스타워	제너럴밀스코리아(하겐다즈코리아)	2,000	GBD	아남타워
	그레이츠 강남	디나미스원	1,800	GBD	홍우제2빌딩
YBD	Parc.1 Tower 1	프라다	3,700	Others	청담동 대산빌딩
		신미글로벌	2,100	GBD	아이파크타워
	FKI Tower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3,700	증평(미래에셋증권빌딩에서 면적 확장)	
		금융감독원	400	증평	
	Parc.1 Tower 2	저스트코	3,400	New	
	IFC 2	얼라인파트너스	1,700	YBD	IFC 1
		YG Investment 등	1,300	Various	

출처: 세빌스 코리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T타워에서는 옴피씨플러스가 퇴거하며 각각 4,000 sqm와 3,300 sqm의 공실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타워에서는 약 7년간 종로타워를 본사로 두었던 맥도날드가 부영태평빌딩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어, 2,600 sqm의 공실이 발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SK계열사가 8,100 sqm의 공실을 해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더익스체인지서울에 있는 서울시 공공기관 무교로 청사가 센터플레이스의 2,900 sqm의 면적에 입주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4분기에 공급 예정인 이을타워는 현재 임대 마케팅 중으로 아직 계약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4월 준공된 G1 Seoul의 경우에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외에 계약된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자산의 공급과 다수의 공실 발생이 동시에 예정되어 있어 CBD의 공실률은 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GBD의 강남파이낸스센터(GFC)에서는 5개 층(26,000 sqm)을 사용 중인 지마켓글로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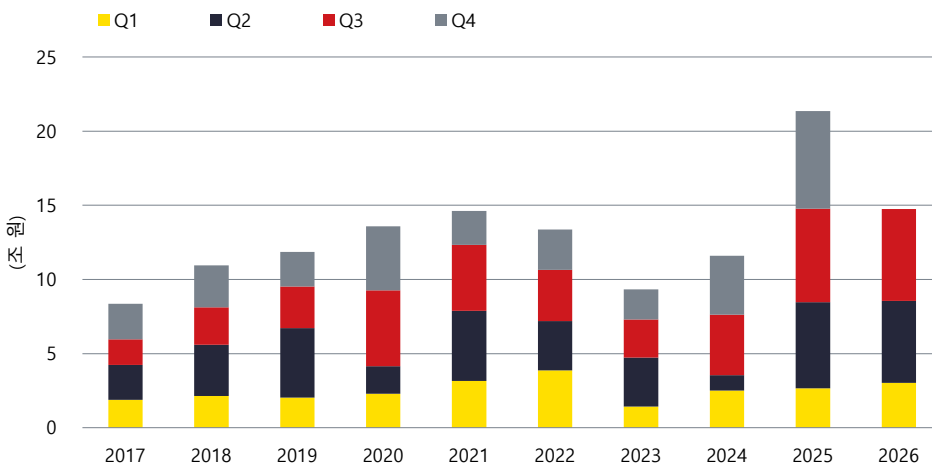
퇴거하여 스타릿성수N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츠 강남에서는 4개 층(7,600 sqm)을 임차 중인 패스트파이브와 백팩커(1,800 sqm)의 퇴거가 예정되어 있다. 센터필드에서는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3,800 sqm)과 세라젠(3,700 sqm)의 퇴거가 예정되어 있고, 엔픽셀의 감평으로 발생할 공실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코리아가 해소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난 2분기 빙썸금융타워에서 롯데 워크플렉스가 퇴거하며 발생한 면적은 빙썸이 추가 증평(10,100 sqm)하여 4분기

중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동들에 따라 5분기 연속 2% 미만을 유지해 온 GBD의 공실률은 소폭 상승하겠으나, 5%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시장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YBD의 공실률은 다른 권역들에 비해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Parc.1 Tower 2에서 카카오뱅크(10,000 sqm)와 바이엘코리아(1,100 sqm)가 퇴거, NH투자증권이 감평(2,300 sqm)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NH농협캐피탈은 NH농협캐피탈빌딩에서 원센티널로 이전하여 공실 14,000 sqm를 해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센티널의 공실률은 30.1%이며, NH농협캐피탈이 입주하면 7.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Parc.1 Tower 1에서는 쿼터백자산운용이 퇴거 예정(3,400 sqm)이고 해당 면적에 라이프자산운용이 IFC 2에서 이전해올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진기업(3,400 sqm)과 한국펀드파트너스(2,100 sqm)가 각각 감평 및 퇴거할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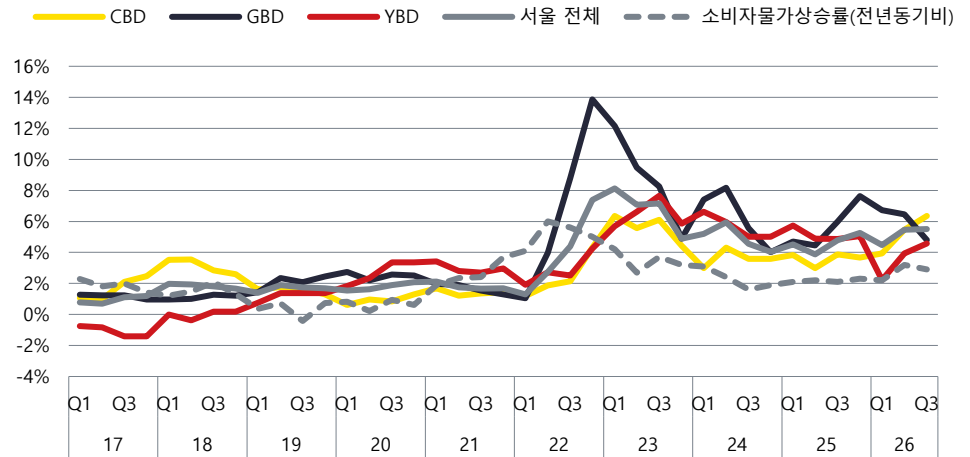
3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시장은 상반기와 달리 순흡수면적이 증가하였고, G1 Seoul과 르네스퀘어에 이어 이을타워까지 공급되면 시장 내 가용 면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 및 확장 수요에 따른 임차인 이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다수의 신규 오피스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자산 간 임차인 유치 경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트 6: 프라임 오피스 거래규모, 2017년 1분기 - 2026년 3분기



출처: 세빌스 코리아

차트 5: 권역별 전년동기대비 임대료 상승률, 2017년 1분기 - 2026년 3분기



출처: 세빌스 코리아, 한국은행

매매 및 투자시장

2026년 3분기 서울 오피스 투자시장 총 거래 규모는 약 6.2조 원으로, 전년 동기(약 6.3조 원)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투자 부담이 확대되면서 일부 거래가 지연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투자 기조하에, 장기 임차인을 확보한 우량 자산과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제고가 가능한 Value-add 자산 등 다양한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산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재 다수의 자산이 거래 중이며 신규 매물도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으나, 높아진 자금 조달 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26년 총 거래 규모는 2025년 총 거래 규모를 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마스턴투자운용이 보유하던 동대문 두산타워는 이시스자산운용이 수익증권(Share Deal) 방식으로 8,9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타워는 구분소유 형태가 일반적인 동대문 일대 주요 쇼핑시설과 달리 단독 소유구조를 갖춘 자산으로, 통합적인 자산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오피스 부분은 두산그룹이 본사로 사용하고 저층부에는 두타몰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임대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지난해 철수하면서 해당 공간을 호텔로 리모델링하는 등 향후 호텔을 포함한 오피스 및 리테일 복합시설로 재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남358타워는 현송교육문화재단이 4,450억 원(평당 약 4,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삼성SRA자산운용이 보유했던 해당 자산의 오피스 면적 대부분을 삼성그룹 계열사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의 절반가량이 거래종결 직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송교육문화재단은 약 2년 전부터 CBD 및 GBD 권역 내 오피스 매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왔으며, 이번 거래에서는 차입금 없이 전액 자기자본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3: 주요 거래사례, 2026년 3분기

권역	빌딩명	매도자	매수자	구분	매매가격 (억 원)
CBD	G1 Seoul	랜스퍼트AMC	미래에셋자산운용	Asset Deal	15,230
CBD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MDM자산운용	Asset Deal	8,000
GBD	강남358타워	삼성SRA자산운용	현송교육문화재단	Asset Deal	4,450
CBD	씨티센터타워	하나대체투자운용	페트라빌자산운용	Asset Deal	2,927
Others	두산타워	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Share Deal	8,900
Others	세미콜론 문래	디앤디플랫폼리츠	KB자산운용	Asset Deal	6,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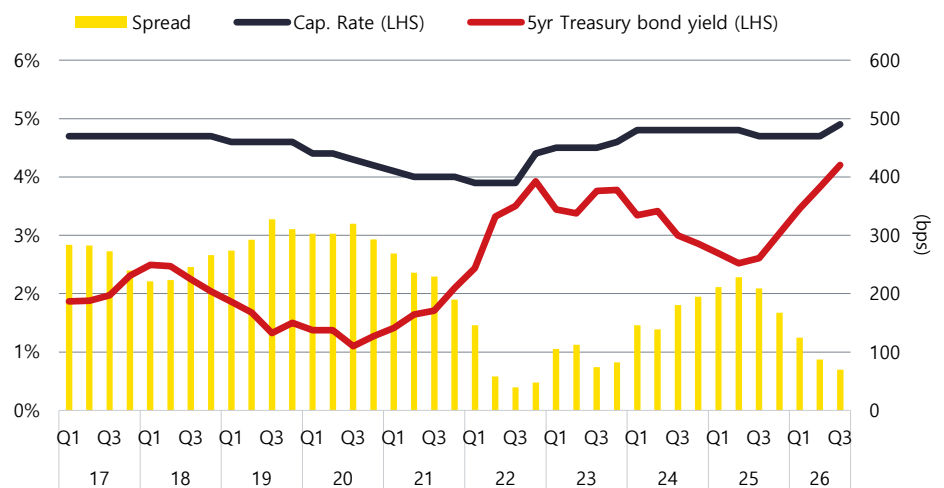
출처: 세빌스 코리아

을지로3가역 인근에 위치한 씨티센터타워는 페트라빌자산운용이 우리은행이 소유한 1층 일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약 2,927억 원에 매입하였다. 주요 임차인으로는 쌍용C&E(본사)와 삼성화재 등이 있으며, 이 중 4개 층을 임차하고 있는 쌍용C&E는 2027년 상반기에 강원도 동해시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료 조정 및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자산의 수익자는 홍콩계 자산운용사인 거캐피탈로 알려졌다.

CBD에 위치한 파인에비뉴 A동은 MDM 자산운용이 8,000억 원에 매입하였다. 본 자산은 신한카드가 2020년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미래에셋자산운용(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번 거래는 신한카드가 매각 후 약 10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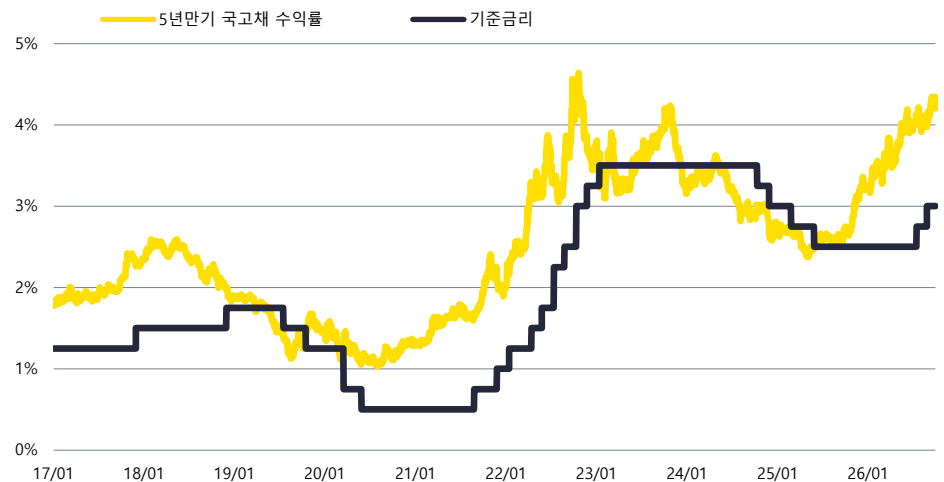
2026년 3분기 기준 서울 프라임 오피스의 명목 Cap. Rate는 4%대 후반, 렌트프리를 반영한 실질 Cap. Rate는 4%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며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두 차례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고채 수익률 및 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면서 Cap. Rate의 상승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처럼 높아진 자금조달 비용에 따른 오피스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향후 금리 환경 및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Cap. Rate의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트 7: 프라임 오피스 CAP. RATE 추이, 2017년 1분기 - 2026년 3분기



출처: 세빌스 코리아, 한국은행

차트 8: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및 기준금리 추이, 2017년 1월 - 2026년 9월



출처: 한국은행

서울 오피스 시장 및 Savills Korea 조사빌딩 개요

표 4: 조사빌딩 개요, 2026년 9월 기준

		CBD	GBD	YBD	합계
A	빌딩개수	26	14	14	54
	평균 연면적 (sqm)	90,000	107,000	110,000	100,000
	평균 준공연도	2006	2005	2010	2007
B	빌딩개수	23	22	9	54
	평균 연면적 (sqm)	52,000	47,000	48,000	49,000
	평균 준공연도	2002	2002	1999	2001
빌딩개수 총합계		49	36	23	108
면적 총합계 (sqm)		3,530,000	2,530,000	1,980,000	8,040,000

출처: 세빌스 코리아 Research & Consultancy

1. 서울 대형 오피스 빌딩

- 서울시에 입지하고 있는 30,000 sqm 이상의 대형 오피스 빌딩은 100% 사옥으로 사용되는 빌딩을 포함하여 2026년 9월 현재 CBD에 24%, GBD에 20%, YBD에 11%가 밀집되어, 전체의 약 55%가 이들 세 지역에 분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Seoul Prime Office 등급에 대한 정의

- Savills Korea에서는 연면적과 위치, 접근성, 가시성, 인지도, 입차인, 준공연도, 빌딩시설,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피스 빌딩의 등급을 정하고 있음.
- CBD, GBD, YBD의 3개 주요 권역에 위치한 30,000 sqm 이상 빌딩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빌딩을 프라임 빌딩이라고 정의함.
- 프라임빌딩 135개 중 108개를 대상으로 서울 오피스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음.

3. 임대료

-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Savills Korea는 건물주가 책정한 기준층 명목임대료(Face Rent)를 조사 및 분석함. 보고서에서 언급된 월임대료는 월세로, 보증금은 월세의 10배임.

4. 순 흡수면적 (Net absorption)

- 해당 기간 동안 오피스 시장 내 증가하거나 감소한 임대면적임.

5. Cap. Rate 산정 방법

- Cap. Rate : (보증금운용이익(5%)+기준층 명목임대료+관리비초과이익)x임대율(95%) x 12 / 거래가, 거래사례별 Cap Rate의 비교를 위해 보증금운용이익은 5%를 일괄적용 함. (2013년까지 95%를 적용했던 임대율은 자연공실률 변동에 따라 2014년부터 90%를 적용하였으며, 2022년부터 다시 95%를 적용함.)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37조에 따라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 명시 위반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avills Research

We're a dedicated team with an unrivalled reputation for producing well-informed and accurate analysis, research and commentary across all sectors of the Korean property market. To view copies of our previous publications, go to www.savills.co.kr/insight-and-opinion/#Research



SAVILLS KOREA



Crystal Lee
CEO

+82 2 2124 4163
csjlee@savills.co.kr



Kookhee Han
Senior Director
Investment Advisory2
+82 2 2124 4181
khhan@savills.co.kr



KeeYoung Ha
Senior Director
Investment Advisory1
+82 2 2124 4154
KYHa@savills.co.kr



Nicholas Tuan
Director, APAC Advisory
+852 9855 4711 (HK)
+44 7815 651 975 (UK)
nicholas.tuan@savills.com



Kyungwon Na
Senior Director
Office Advisory &
Marketing Services
+82 2 2124 4252
kwna@savills.co.kr



Danny Chung
Director
Office Advisory &
Marketing
+82 2 2124 4160
bhchung@savills.co.kr



JoAnn Hong
Senior Director
Research & Consultancy
+82 2 2124 4191
jhong@savills.co.kr



Olivia Ng
Analyst, APAC Advisory
+852 2842 4270
olivia.ly.ng@savills.asia

SAVILLS RESEARCH

SAVILLS APAC ADVISORY

Savills plc is a global real estate services provider listed on the London Stock Exchange. We have an international network of more than 700 offices and associates throughout the Americas, the UK, continental Europe, Asia Pacific, Africa and the Middle East, offering a broad range of specialist advisory, management and transactional services to clients all over the world. This report is for general informative purposes only. It may not be published, reproduced or quoted in part or in whole, nor may it be used as a basis for any contract, prospectus, agreement or other document without prior consent.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its accuracy, Savills accepts no liability whatsoever for any direct or consequential loss arising from its use. The content is strictly copyright and reproduction of the whole or part of it in any form is prohibit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Savills Research.